

2. 마지막 일들 - 1.

죽음 (DEATH)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 * *

1. 아담의 죄가 죽음을 불렀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땅에서 삶의 기반을 잘 닦는 것이 죽음을 막지 못한다. 좋은 일이 나날이 이어져도 죽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시 39:5).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리 잘나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이다. 이렇게도 죽음이 무섭고 임박한 현실인데 사람들은 이 현실을 쉽게 간과하며 산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시급히 얻으려 하기보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한다. 이것은 마치 내일 체크아웃 해야 하는 호텔방에서 “이 방을 어떻게 꾸밀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

시 39:5

성경은 죽음이 처음부터 사람의 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죽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없던 현실인데,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이 말씀에 따르면 죽음만 아니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죄도 처음 세상에 없던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물이 생동력을 가지게 된 근원은 하나님이 ‘있으라, 나뉘라, 모이라, 내라, 이루라’ 등과 같이 만물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광대한 우주는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어마어마한 시스템 속에서도 서로 조화 있게 움직이며 생명력을 내뿜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행동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말씀으로 연결되어 생명력을 발하던 세상’은 산산이 깨졌다. 사람과 사람의 연합, 사람과 땅의 조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사람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의 연합이 깨져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서 당장 죽지는 않았지만, 태엽이 풀리고 있는 시계와 같이 남아있는 육체의 기능들이 끝을 향해 작동할 뿐이었다. 사람만이 아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로 짐승도, 식물도, 우주 전체도 함께 죽었다. 만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육체의 기능을 하며 끝을 향해 죽어가고 있다(전 3:19).

전 3:19; 롬 8:20-22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죄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죄’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죄’는 만물을 산산이 깨고, 부수고, 찢는다. ‘죄’는 분석력을 높이는 반면 연결성을 파괴한다. 그래서 죄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할 때는 철저히 ‘분석적’이고 ‘개인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시스템은 그 반대이다. 사람의 몸이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보는 기능, 냄새 맡는 기능, 듣는 기능의 기관들이 따로 있지만, 몸이 죽으면 그 기능들이 한 번에 죽는다. 반대로 몸이 살면 모든 기능들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성경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고 하신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6 장에는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사람이 모양으로만 살아있을 뿐 흠으로 돌아가는 한시적 육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창 6:3).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구성하는 절대요소가 하나님의 영이다.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다(창 2:7). 사람은 모태에서 나온 육신만으로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그에게는 오직 육신만 남았고, 그 육신에서는 또 다른 육신이 나올 뿐이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요 3:6-7)고 하셨다.

창 2:7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창 4:26; 행 4:12; 롬 10:13).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셨고, 신약에서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영주하신다.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성이 신약시대에 와서 ‘개별성’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민족의 울타리를 너머 열방으로 확산된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었다. 즉, 죄가 깨 버린 세상이 성령으로 다시 연합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만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엡 4:3). 이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이다(계 21:1).

계 21:1

Q.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수 23:14; 사 40:6-8 _____

* * *

2.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사람은 여러 경로로 죽음을 맞는다. 가장 자연스럽게는 늙어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이나 사고로 죽고,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인해 살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기도 한다. 또한 법정의 형벌로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치셔서 죽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죽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음을 결정하실 때 찾아온다(신 32:39; 욥 14:5; 눅 12:20; 계 1:18).

욥 14:5 _____

그러므로 사는 날만 헤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죽음의 날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준비'일 뿐, 진정한 '죽음의 준비'는 죽음 이후에 찾아올 현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준비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시 90:10-13; 요 1:12-13). 그 준비는 바로 '거듭남'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땅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함이다. 또한 거듭남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되는 일이고, 구원의 전체 역사, 즉 '복음'을 통해 그 전말(顛末)이 밝히 드러난 사건이다.

딤후 1:9-10 _____

Q. 하나님이 '땅에서 네 삶을 정리하라'고 하실 때 나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눅 12:20-21; 사 28:1-3 _____

시 90:10-13 _____

* * *

3. 다시 죽을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을 ‘하늘의 현실’이다(요 3:11-13, 31-34). 그 가운데 절정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차이는 하늘에는 사망이 없고, 거기서는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이다(눅 20:35-36; 계 21:4).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때 ‘사망’ 자체를 사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계 20:14).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언 성취의 첫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 변화하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때 이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져 영원한 현실이 될 것이다(사 25:8; 고전 15:51-54).

고전 15:51-54 _____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죽음을 맞는 것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지 않는다(사 25:8; 고전 15:51-54).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6)고 물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는다. 우리는 두려운 중에 죽음을 맞지 않고, 어느 날 잠을 자고 깨어난 아침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시 17:15).

Q. 땅에서는 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사망이 없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 17:14-15 _____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가슴을 쓸어 내리는 일들은 모두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조금만 틀어지거나 잘 되던 일이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생기는 것도 죽음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끊으려는 죄의 현실이 우리를 죽음의 현실로 몰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참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여기서도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